

제주문화 속의 오름

- 자연풍수관을 중심으로 -

신 영 대*

〈차 례〉

- | | |
|-----------------|------------|
| 1. 들어가는 말 | 6. 오름과 목축 |
| 2. 한라산과 오름 | 7. 오름과 문학 |
| 3. 제주오름과 풍수의 지명 | 8. 오름의 형상화 |
| 4. 제주오름과 지모관 | 9. 맺는 말 |
| 5. 제주문화 속의 풍수관 | |

1. 들어가는 말

늘 오름을 오를 때면 생각한다. 오름의 실체를 모르면 오름은 그저 오름일 뿐이라고. 그러나 오름의 실체를 알 때 오름은 최고의 생명력으로 다가온다고. 그렇다. 오름은 제주인의 생활 근거지였고 신앙의 터전이었으며 항쟁의 정신이 살아 숨쉬었던 곳이다. 오름의 자락마다 슬한 역사의 질곡 속에서 피어난 제주인의 삶과 숨결이 깊게 배어 있다.

'오름에 나서 오름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제주인은 한라산의 품, 한라산의 자락에서 태어나 오름을 기대어 살다가 오름으로 돌아가 오름의 자락에 묻힌다. 이러한 순환의 삶의 형태,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제주인의 삶 그 자체다. 제주의 선조들은 영험한 기운이 서린 한라산의 산록(山麓)을 일구며 산천의 정기가 용출하는 곳곳에 삶의 터전을 가꾸고 촌락을 형성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1만 8천이나 되는 '신들의 고향', 368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가 곳곳에 솟아 있는 '오름의 왕국', 60여개의 골짜기와 사방으로 실핏줄처럼 퍼져 감아 도는 하천을 안고 생태환경의 섬 제주도는 태고로부터 쉬임없이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 이 신령한 한라산의 정기를 머금고 품안에 있는 오름들은 제주인의 삶과 어

* 제주관광대 겸임교수 · 풍수연구가

떤 상관관계에 있는 것일까? 또한 오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오름의 자락에서 살아온 제주인은 그 속에서 무엇을 꿈꾸었는지, 앞으로 오름은 제주의 땅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오름과 관련하여 맺어지는 제주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정신관, 생활관 등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오름을 빼어놓고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문화 속에 자리한 오름은 제주인의 삶과 의식 속에 어떤 존재로 여겨져 왔으며, 오름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실제로 제주문화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삶의 터전이 되어 온 오름은 어떠한 모습으로 제주정신을 이루는 모태의 하나가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특히 제주의 문화 속에 제주인의 오름에 대한 지배적인 저류(低流)는 무엇인지 피상적인 견해를 덧붙여 주제의 근간을 형성하고자 한다. 더불어 제주의 정신이 면면히 살아 숨쉬고 제주문화의 깊은 맥이 흐르는 오름에 대한 역할을 재조명하고, 오름에 대한 가치의 재정립과 오름의 보존과 관리방안을 생각하고 오늘날 오름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자연풍수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

시간과 공간을 이어주며 우리가 살아가며 숨쉬는 땅, 그러한 맥락 속에서 특히 제주인의 삶의 문화가 시간 속에 축적되어 점철된 정신적 고향인 오름의 실체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름마다 선인들의 삶과 지혜, 지명과 설촌유래, 설화, 신화, 역사, 문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생활문화가 자리하면서 제주인의 가치관과 삶의 향기가 생생하게 살아 있다. 368개나 되는 개개의 오름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할 때 오름의 역할은 무한대의 비상을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안고 『제주문화 속의 오름』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 본령을 생각하고 밝히는 일은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오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주인의 삶 속에 오름이 갖고 있는 생명의 실체를 파악할 때 오름은 최고의 가치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한다.

2. 한라산과 오름

1) 자상한 어머니의 품 한라산

예로부터 영주산(瀛州山), 즉 한라산은 삼신산(三神山)으로 불리며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과 더불어 신령한 한민족의 3대 영산(靈山)으로 여겨 왔다.

천변만화하는 신비한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와 모습, 수많은 설화와 전설은 물론 『고려사(高麗史)』,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나 작자미상의 『영주지(瀛州誌)』,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 김석익(金錫翼)이 새로 편저한 『탐라기년(耽羅紀年)』,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誌)』, 이증(李增)의 『남사일록(南槎日錄)』 등 기타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육지에서 약 천여리를 사이에 두고 남쪽 바다에 돌기한 국내 최대의 섬이며 동서가 약 400리, 남북이 약 200리로 지형이 둥그스름하고 길어서 마치 달갈의 형상과 같다. 한라산맥은 높고 낮고 일어나고 엎드린 듯한 고저기복(高低起伏)이 출중하여 풍경이 아름답고 기맥이 잘 발달된 곳이다. 한반도의 두 번째로 높은 1950m의 한라산은 화산폭발에 의해 이루어진 신비한 영산이며, 산정(山頂)의 높고 빼어남이 푸른 하늘을 만지는 듯 하다. 한라(漢擊)라고 부르는 것은 은하(銀河) 또는 은한(銀漢)을 끌어당길 만한 높은 산이기에 붙여진 말이다. 혹은 높으면서 둥글어 원산(圓山)이라고도 하고, 봉우리마다 굽부리를 이루고 평평하여 두무악(頭無岳)이라고도 한다. 산 전체에 우거진 숲과 괴암괴석과 천형만학(千形萬壑)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영주산이라고도 일컫는다. 이에 대한 기록은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²⁾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시대에 따라 한라산의 명칭은 부악(釜岳), 선산(仙山), 진산(鎭山), 여장군(女將軍), 단산(單山), 부라산(浮羅山), 원교산(圓嶠山), 무두악(無頭岳), 두무산(頭無山), 봉래산(蓬萊山), 혈망봉(穴望峰), 조선부산(朝鮮富山), 하늘산 등 무려 20여개에 달하는 이름이 있는데, 제주학의 선구자이자 나비박사로 잘 알려진 석주명(1908-1950)의 『제주도 수필』 등에서 위에서 언급한 명칭들이 대부분 소개되어 있다.

특히 육지의 풍광과는 달리 독특한 천연미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동경 126°5'2"이며, 북위 32°50'에 위치하여 어머니의 모태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368개의 오름을 안은 영험한 기운이 깃든 섬으로 목포까지 약 88리요, 부산까지 약 17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절해고도의 타원형의 섬으로 서쪽으로 중국의 상해(上海)까지 약 2백리 떨어져 있고, 동쪽으로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오도(五島)까지 약 100리 정도 떨어져서 동해상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산세는 대체로 사방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다로 들어가고,

2)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地誌 漢擊山在州南二十里, 其曰漢擊, 以雲漢可擊引也.
 一云頭無岳, 以其峰峰皆平也. 一云豆毛岳, 以山之連絡者非一, 而峰頭皆有池, 似貯水器也.
 一云圓山...

마을은 주로 경작지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해안지대에 많이 들어서 있다.

충암(仲庵) 김정희의『제주풍토록』에 '한라산 절정에 올라 창망한 바다를 사면으로 둘러보며 '남극노인성'(노인성의 크기는 셋별만 하고, 남극의 중심에 있어 지상에 나오지 않으므로 만약 이 별을 보게 되면 장수한다는 상서로운 별이니 다만 한라산과 중국의 남악에서만 이 별을 볼 수 있다')을 굽어보고 월출·무등의 모든 산을 내다보니 기이함이 가슴을 후련하게 씻을 수 있다'³⁾ 라고 되어있다. 또한 이원진의『탐라지』에 나타난 한라산 예찬시에는 권근(權近)의 〈응제시(應製詩)〉⁴⁾, 판관 김치(金緻)의 〈등절정(登絕頂)〉⁵⁾·〈영실시(瀛室詩)〉⁶⁾, 어사 이경억(李慶億)의 〈영실우우(瀛室遇雨)〉등이 있다.

오름을 품에 안은 한라산은 어미닭과 같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분포해 있는 오름들을 새끼병아리에 비교한다면, 한라산과 오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2) 한라산의 산세

제주도 한라산은 태조산인 백두에서 발원하여 즐기치게 흘러 내려온 대맥(大脈)이다. 그 힘솟는 지맥이 종산(宗山)인 한라산에서 멎혀 제주의 생명력을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다. 제주도에 대해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를 보면 "마이산 서쪽과 북쪽에서 뻗은 두 지맥은 진잠과 만경에서 그치고, 그곳에서 가장 긴 것은 노령에서 세 가닥으로 갈라져 서북쪽 두 지맥이 부안·무안을 지난 다음에 흩어져서 서해 북편의 여러 섬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긴 것은 동쪽으로 가서 담양 추월산과 광주 무등산이 되었고, 추월산과 무등산맥이 다시 서쪽으로 내리 뻗어 영암의 월출산이 되었다. 월출산에서 다시 동쪽으로 흘러 광양 백은

3)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登漢拏絕頂，四顧滄溟俯，觀南極老人(老星大如明星，在天南極之軸，不出地上，若峴則仁壽之祥，唯登漢拏及中原南嶽則可見此星)...

4)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權近應製詩，蒼蒼一點漢拏山，遠在洪濤浩渺間，人動星芒來海國，馬生龍種入天關，地偏民業猶生遂，風便商帆任往還，盛代職方修版籍，此邦雖陋不迷刪。

5)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石磴穿雲步步危，兩餘天氣快晴時，山高積雪經春在，海翻長風盡日吹，鶴駕不迷玄圃路，鳳簫留待赤松期，從今欲試殘霞術，歸去人間莫恨遲。

6)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萬壑杉松一經幽，每峰佳處暫遲留，峰頭怪石羅千佛，巖低清泉到十州，目下洞天騎白鹿，笑看仙子跨青牛，飄然迴出人間表，自此仍成汗漫遊。

산에서 그쳤는데, 구불구불한 산맥이 갈짓(之)자 모양과 같다. 월출산의 한 맥이 남쪽으로 흐르다가 해남현 관두리를 지난 후에, 남해 북편의 여러 섬이 되었고, 바닷길 천리를 건너 제주 한라산이 되었다. 혹은 한라산 맥이 바다를 건너 유구국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제주도 한라산은 태조산인 백두에서 심원(深遠)하여 즐기치게 흘러 내려온 대맥이다. 그 힘솟는 지맥이 종산인 한라산에서 맺혀 제주의 생명력을 독창적으로 만들어 내고 품에 안은 오름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운의 경계를 짓는 대표적인 하천인 무수천, 병문천, 창고천, 금성천, 한천, 신례천, 옹포천, 연외천, 강정천, 효돈천, 천미천 등을 사이에 끼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기맥(氣脈)을 형성한다.

제주도 지세에 대해 청음(淸陰) 김상현이 편저한 『남사록(南槎錄)』에 “임자순(林子順)의 남명소승(南溟小乘)에 의하면 섬이 나라의 정남에 있어서 한라산이 그 가운데 있고, 좌우의 날개를 퍼서 한일(一)자와 같이 가로 퍼져 있는데 제주 일진(一鎭)은 북쪽에 있어서 바다에 임하고 바로 두무악과 서로 대하였고 정의현은 좌익의 남쪽에 있고...”⁷⁾ 등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제주도 풍수의 고전으로 익히 알려진 『과영주산세론(過瀛州山勢論)』⁸⁾에 ‘영주산 즉, 한라산은 마치 백학이나 푸른 매의 형국으로 주위 사방이 높고 마치 장군이 홀로 앉아 있는 듯 하다. 머리는 서쪽으로 향하고, 꼬리는 동쪽으로 내려 조종산(祖宗山)인 백두산을 돌아보는 형국이다. 동쪽의 지세는 미인의 눈썹 같아 벼슬하지 않아도 번성하고, 서쪽 산의 형세는 창고와 같아 농사에 관한 일을 하면 크게 이룬다 했다. 남쪽의 지세는 매의 형상과 같아 날아서 먹이를 얻지 않으면 앉아서 굶는다 했다. 북쪽의 지세는 호랑이의 머리 형국으로 천리에 있는 먹이를 얻는데 성공한다’ 라고 했다.

이 밖에도 영주완형시(瀛州甌形詩), 『제주도산록(濟州島山錄)』, 『탁옥정도식(琢玉

7)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馬耳西北二枝止鎭岑萬頃其最長者自蘆嶺分三脈西北二枝由扶安務安而散作西海中諸島其最長者東去爲潭陽秋月山光州無等山秋月無等又西行爲靈巖月出山自月出又東行止於光陽白雲山山脈之屈曲如之字形而月出一枝別爲南行由海南縣?頭里爲南海中諸島渡海千里爲濟州漢拏山而或云漢拏又渡海爲琉球國...

8)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林子順南溟小乘, 島在國之正南, 而漢拏峙其中, 張左右翼, 如一字橫鋪, 濟州一鎭在北而際海, 正與頭無岳相對(頭無漢拏別名), 旌義縣在左翼之南...

9)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瀛州山之所見, 若白鶴之青鷹, 周四方而高瞻, 若將軍之獨坐, 頭向西而尾東, 回顧祖而的實, 東發跡而蛾眉, 遊談業而成家, 西山形而倉庫, 近土業而大成, 南角勢之鷹鳥, 飛得食而坐飢, 北角勢之虎頭, 千里食之成功.

亭圖式)』등에서 제주도의 산세를 논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충암의 『제주풍토록』에 영실 존자암에 대한 지세를 언급하고 있으며, 청음의 『남사록』에서도 한라산의 산세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수록하고 있다. 김치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에서는 한라산의 이모저모와 영실의 존자암, 특히 수행굴(修行窟)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3) 일반적인 오름의 이해

‘한라산이 곧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다’라고 전제할 때 ‘오름이 곧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곧 오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오름이란 제주화산도상에 산재해 있는 기생화산구를 말한다. 즉, 오름의 어원은 자그마한 산을 말하는 제주도 방언으로서 ‘오르다’의 명사형으로서 ‘자그마한 기생화산’이란 의미로도 이야기하나 오름의 표기에 대한 학술적 규명은 시도되고 있으나 인식의 통일성은 아직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곳에 따라 ‘산(山)’, ‘악(岳)’, ‘봉(峰)’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더욱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제주인이 생각하는 오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경사가 급하지 않고 봉우리가 둥글게 봉긋 솟아 있는 형태의 기생화산을 지칭하며, 산체의 산록 상에서 만들어진 날낱의 분화구를 갖고 있는 소화산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분화구를 갖고 있고 내용물이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산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김정익의 『제주풍토록』에서는 오름에 대해 “구렁이 있되 모두 외따로 떨어져 우뚝하나 머리가 없이 활처럼 휘었으며 (모두 고립되어 있고, 우뚝 솟진 않았고, 또한 머리가 벗겨졌다), 돌아 감싸안은 듯한 형세는 없고, 오로지 큰 봉우리가 하늘 가운데 우뚝 솟아 시야를 가릴 뿐이다... 또 산봉우리의 정상은 반드시 오목하여 오목한 가마솥과 같고 진흙물을 이루어 고여 있는데, 봉우리마다 그러하므로 머리 없는 두무악(頭無岳)이라 한다”¹⁰⁾ 고 했다.

이처럼 오름의 독특한 이미지는 제주만의 특징이다. 풍수에서 ‘일척이라도 높으면 산이요, 일 척이라도 낮으면 물이다’라 했다. 물론 오름도 산이다. 그러나 제주 선인들이 굳이 산과 오름을 구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지형적 특성으로만 붙여진 이름일까. 인식의 보편성을 갖고 한라산과 오름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10)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雖或有丘巒 而皆孤擲窿頽(孤而不變, 隆而又頽), 无廻擁之勢, 唯見巨岳, 窿然當中, 礙睞而已其視...又山峰之頂, 必凹如篲, 陷成泥潦, 峰峰皆然故, 謂之頭無岳.

4) 오름이 안고 있는 상징성

오름은 마을마다 진산(鎭山)의 역할을 하며 주민들의 삶 속에 뿌리한 정신의 맥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특히 오름들은 색채의 아름다움과 공간배치의 조화성, 음양오행의 형체론적 역(易)의 이치를 담고 있으며 조형미와 변화의 창출성이 빼어나고, 상호 보완성의 지맥을 안고 있다. 또한 '제주의 오름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를 살아온 제주인들의 손길이 닿은 결과, 자연과 역사와 문화의 복합체로서 인식해야 한다'¹¹⁾는 중요한 사실이다.

제주도의 오름은 저마다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제주의 오름은 동양의 음양사상에서 오행(五行)의 특징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풍수학에서 말하는 오행의 성정을 표현한 오체(五體)의 형태별로 구분한다면 목형(木形), 화형(火形), 토형(土形), 금형(金形), 수형(水形)이다. 오름마다 오행의 형태로 조형미를 이루며, 색채의 상호배합과 미끈한 곡선미를 나타내므로 오름의 곡선은 제주미의 상징 중 하나이다. 또한 오름은 곳에 따라 신비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근현대까지 오름은 항쟁¹²⁾의 터전이 되었으며, 테우리들의 생활 근거지가 되었다. 제주의 오름에서나 볼 수 있는 목가적인 풍경은 색감의 조화가 완전한 오름의 등성이에서 말이나 소,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모습이다. 또한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오름은 변화를 간직한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다.

오름은 신앙의 터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오름마다 섬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의 사연이 쌓여 있으며, 오름의 형태에 따라 전설이 담겨 있기도 하다. 특히 제주

11) 한라일보, 2003년 12월 12일자, 제10면, 제주교육대 정광중 탐사위원의 소감.

12) 애월읍 고성리 향파두성 북쪽에 바다 쪽으로 위치한 破軍峰(파군봉)은 몽고군에 맞섰던 삼별초군의 전초기지가 있던 곳이며, 제주시 동쪽 외곽 바다쪽에 위치한 沙羅峰(사라봉)은 일제때 일본군에 의해 파놓은 굴이 많고, 봉수대 터가 남아있다. 원래 오름을 이용한 봉수대 24개소와 해안 고지대에 煙臺(연대) 38개소를 설치했음. 별도봉, 사라봉, 원당봉, 입산봉, 지미봉 등 섬을 돌아가며 주요 오름마다 봉수대나 연대가 있었다. 또한 일제말기 일본군에 의해 요새화의 목적으로 격납고, 고사포진지, 훈련기지, 주둔지 등으로 훼손된 오름은 셋별오름, 사라봉, 어승생악, 원당봉, 명도암오름, 송악산, 모슬봉, 성산일출봉 등이다. 4·3 항쟁의 거점 역시 오름이 주요 장소였다. 예를들어 민오름, 수산봉, 바늘오름, 새미오름, 문오름, 셋별오름 등이며, 유격대들의 주둔과 훈련지의 근거지였던 바농오름, 물미오름, 눈오름, 정물오름, 새미오름, 불래오름, 남송악, 노리오름 등이 있다. 오름은 항쟁의 근거지였으면서 역사의 과정에서 수난의 상처가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시 소재 삼양동에 있는 원당봉(元堂峰)에서 천제를 올리고 원천자(元天子)를 낳았다 하여 원당오름이라 불리어졌다고 하며, 한림읍에 있는 당오름이나 조천읍에 있는 당오름은 옛날에 당(堂)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처럼 오름은 제주인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복합적인 문화를 형성한 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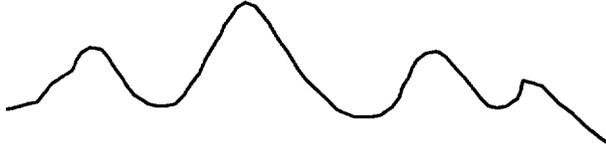
또한 오름은 제주 선조들의 생활근거지가 되었다. 오름마다 말과 소를 방목하였으며, 지역을 구분하는데 물길이나 오름이 이용되었다. 오름을 중심으로 제주인들의 뼈를 묻는 묘역이 형성되었고, 오름은 서북풍을 막아 주는 진산으로 삼아 대개 명당의 혈처(穴處)를 찾아 동쪽이나 남쪽에 좌향이 들어섰고 둔지봉이나 높은오름, 동거문오름은 사방에 무덤들이 산재해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름은 주요 생활수단인 마소를 키우는 목축지의 근거지였고, 부락이 형성되는 모태가 되었으며, 제주도내 산재한 오름마다 그들의 뼈를 묻으며 슬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삶의 숨결이 깊게 묻어 있는 오름의 자락들이 오늘날 골프장 건설이다 리조트 단지 형성이다 하면서 나름대로 개발의 명분을 내세우며 마구 파헤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라의 영험한 기운을 안고 오름을 여과기로 삼아 맑고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생수가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한라산 자락의 골프장 건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중산간 일대의 난개발은 점점 수질의 오염을 가져오고 있다. 오염은 원인은 자연의 산하가 개발에 의한 자정능력(自淨能力)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오름이 안고 있는 진정한 상징은 곡선미와 원형(圓形)이 가져다주는 원망성(遠望性)이다. 사각과 직선은 제주도의 지형에 부적합한 배합이 된다. 요즘 상징성과는 멀게 필요한 부분의 도로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도 오로지 지형과 마을의 정서적 분위기를 외면한 채 딱딱한 직각의 형태나 직선의 도로들이 좌우로 관통되어지고 있으니 생각해 볼 일이다.

5) 오름과 오행의 산형

i) 목형산(木形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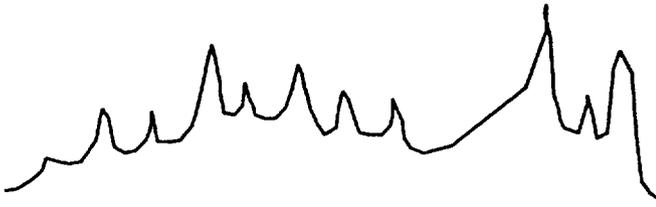
특별하게 섬세하거나 첨예하지는 않으나 봉우리가 하늘을 향해 힘있게 솟아올라 간 모습이다. 성격은 곧고 대체로 귀한 것을 주재한다. 이러한 산의 정기를 받은 사람은 문인, 학자 등 귀한 사람이 나오게 된다. 산의 성격은 곧고 불쑥 솟는 형국으로 힘이 따르며 산의 중간 아랫부분, 즉 배(腹)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지 용(龍)이 많이 퍼지는 편이다. (서귀포 보목동의 쉼섬, 둔지봉, 동거문이, 지미봉 등

그 외 오름에 많이 나타남)



ii) 화형산(火形山)

산봉우리가 마치 불꽃처럼 뾰족뾰족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형산이 청명(淸明)하면 자질 있는 화가나 예술가가 나온다. 대체로 화형산은 기운이 흩어져 있으므로 혈(穴)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외형은 화려하고 아름다우나 실속은 없다. 산의 성격은 건조하며 섬세하고 날카로운 면을 지닌다. (영실기암이나 성산일출봉 등)



iii) 토형산(土形山)

산의 윗부분이 지붕이나 평상처럼 평평한 모습을 하고 있고 토형산의 정기를 타고난 사람은 대체적으로 목·화·금·수의 네 가지 성격을 모두 포용하는 기질을 갖는다. 대체적으로 토형의 산은 기운이 충만하여 왕후장상(王侯將相)이 나오고 오복(五福)을 겸비한다. 또한 산의 형태가 마치 일(一)자와 같기도 하여 일자문성(一字文星)이라고도 부르며 균형감과 안정감을 지닌 산이다. 산의 성격은 후중(厚重)하다.(손자봉, 돛오름, 두산봉, 좌보미, 백약이 등)



iv) 금형산(金形山)

산봉우리가 둥글고 풍부하며 마치 종 또는 가마솥의 뚜껑 모양과 흡사하다. 철모나 바가지를 엮어놓은 것처럼 둥그스레하니 들판에 곡식을 많이 쌓아 둔 상이다. 다른 말로 부봉사(富峰砂)라고 하며 산에 청명한 기운이 감돌면 큰 사업가나 기업가, 총신, 부장 등이 나온다. 산의 성격은 둥글며 맑은 편이다. 주위가 정결하고 목형산처럼 산의 가지가 많이 퍼져 나가는 편이다.(제주도에 산재하는 대부분 오름의 형태로 예를들면 백약이, 다랑쉬, 높은오름 등)



v) 수형산(水形山)

산의 기세가 큰 굴곡이 없는 반면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이어져 진행해 가는 모습이며 산의 기운이 청명한 즉 선비나 학자 등이 나온다.(육지의 산형에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한라산의 능선에서 찾아볼 수 있음)



6) 오름에 대한 옛 제주인의 시각

제주인들은 오름의 형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희망을 담아 상징화했다. 오름마다 오름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생생하다. 그러한 오름은 어느덧 그들이 불어넣은 생명체가 되어 그들의 소망을 싣고 비상(飛翔)의 날개짓을 했다. 척박했던 곳에서 온갖 질곡의 한숨을 오름의 자락에 묻으며 아픔과 한을 달랬다. 오름은 시간의 역사 속에서 늘 안식과 위안을 제공해 주었다. 오름은 저마다의 사연을 담고 있다. 그 사연 속에 그들이 살아온 발자취가 역력히 배어 있다. 오름은 어머니의 포근한 품처럼 고단한 삶을 풀어 주는 의지의 대상이었다. 오름에 얽힌 술한 설화와 전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들 자신의 피상의 존재이자 자화상이었다. 오름은 제주

인들의 피안(彼岸)의 존재처럼 여겨졌으며, 오름은 영원한 그들의 고향이자 안식처로서 인식 되었다.

7) 고지도와 오름의 지맥

옛 지명 등 제주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중〈한라장축(漢拏壯屬)〉은 1702년 당시 이형상 제주목사가 제주도 전역을 순력하면서 화공을 시켜 그린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을 그림형태로 나타낸 도서로서 마을의 지명과 물 흐름 등의 표기가 비교적 정확하다. 이형상 목사의 저서로는 제주도 인문지리서인『남환박물(南宦博物)』등이 있고, 또한 제주에 관한 지도 가운데〈여지도(輿地圖)〉중 6책 속에 들어있는〈제주도도(濟州道圖)〉는 주요 하천과 오름의 지맥들이 상세히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1698~1703년 제작된 것으로 가로29.2cm×세로 19.2cm이다. 그밖에 한라산과 주요 오름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제주도 유형문화재 13호인〈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 1428년(조선 성종 13년)에 양성지(1415-1482)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등이다. 제주도 지도의 시초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1002년(고려 목종5년)에 제주도의 화산폭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천공지의 작품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18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조선강역총도의〈제주지도(濟州地圖)〉, 1800년대에 제작된〈광여도(廣輿圖)〉, 김정호의〈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청구도(靑邱圖)〉,〈동여도(東輿圖)〉 등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김정호의〈대동여지도〉는 주요 하천과 오름의 지맥들이 상세히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오늘날 제주의 지맥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3. 제주오름과 풍수의 지명

1) 지명과 풍수

신라 말기에 승려 도선대사의 풍수지리설이 유행하였다. 고려·조선시대에는 이설의 영향을 받아 형국론에 의하거나 비보(裨補)·압승(壓勝)의 의도를 가미하여

지는 땅이름이 많다. 풍수는 장풍득수(藏風得水)란 말을 줄인 것이다. 즉 바람을 막아 주고 몸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는 것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이러한 풍수지리설은 산천수류(山川水流)의 모양을 인간의 길흉화복에 연결시켜 설명하는 지상학(地相學) 또는 상지학(相地學)이라 할 수 있다. 현대지리학에서는 땅을 오직 물질적인 것으로 보아 사람의 이용에 따라서 작용하는 수동적인 것으로 다루어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데 대하여, 풍수설에서는 모든 토지를 능동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 땅이 지나는 지형지세에 따라 강약과 유동의 정도가 달라지는 신비한 힘(氣)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의 후박(厚薄) 여하에 따라 인생의 당대 또는 후대의 영고성쇠가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 나라의 풍수설은 주거선정이나 취락입지의 양택론(陽宅論)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면(永眠)의 장소를 찾는 음택론(陰宅論)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명에는 대부분 풍수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삼천리 방방곡곡 사찰이든 부귀겸전한 훌륭한 가문의 명당을 가보면 모두가 풍수의 길지(吉地)를 얻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답사를 통해 그러한 국반급(國班級)의 명당자리를 보면 산음발복(山蔭發福)하는 풍수의 오묘함을 실감할 수 있다. 예컨대, 제주도 서귀포시에 속한 보목동 앞에 문필(文筆)의 기상으로 수려하게 서 있는 '쇳섬'이 있는데, 이 문필봉의 정기를 안고 이 마을에 약 80여 년간 학문과 관계된 교수·교사가 근 400여명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쌍동 마을인 비하리(飛下里)와 비상리(飛上里)에 국제공항이 생겼는데, 이 '비(飛)' 자는 비행기가 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수만리(水滿里)라 부르는 수백년 된 마을이 이곳 지역에 댐공사로 인하여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되어 이주하게 되어 지명대로 물로 가득차게 되었다. 또한 강원도에 있는 천공(穿空 : 뚫어서 난 구멍)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철도를 위한 터널이 마을 밑으로 지나면서 터널의 공기소통을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이 그 마을로 통하고 있다. 그리고 온천이 나는 지역은 대체로 지명이 '온(溫)'자나 '부(釜: 가마솥)'자와 관련이 있는데, 예컨대, 온양(溫陽)온천, 부곡(釜谷)온천 등이 그러하고, '매(埋: 묻을 매)'자가 있는 지명에는 대체로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다. 예로부터 풍수지리의 심오한 진리는 효 사상에서 출발하여 우리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지혜로 삼아 왔다. 응험(應驗)에 대해 고서(古書)¹³⁾에서는 대저 사람의 부모

13)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蓋人之於父母，猶木之根之類，根固則枝茂，故父母之體骸安寧，子孫亦安寧，父母之體解，多侵水火蛇蟻，子孫亦爲之應而多乾焦勞瘵之疾，山有生氣，體魄光淨，子孫亦爲之應而榮華，地無絡脈，體魄消燼，子孫亦爲之應而絕敗，禍福之驗，如影之隨，如響之應，不可慎哉

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니, 뿌리가 견고하면 가지가 무성하다. 그러므로 부모의 체해가 안녕하면 자손 역시 안녕하고, 부모의 체해가 물, 바람, 뱀, 개미가 침입하면, 자손에게 응하여 마르고 괴로운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 산에는 생기가 있으니, 체백이 윤택하고 맑으면 자손도 역시 응하여 영화를 누린다. 땅에 맥이 이어지지 못하여 체백이 윤택함을 잃으면 자손도 역시 응하여 절패하게 된다. 화복의 응험은 마치 그림자가 따르는 것 같고, 소리가 응하는 것 같으니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 지명에는 역사와 민속과 고사, 그리고 지형이며 지표며 어떤 자연 현상, 인간 현상까지도 그 이름 속에 숨쉬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많은 파괴가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도 행정 구역을 합치고 떼고 할 때마다 지명을 별반 죄책감 없이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의 지명 중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표기된 지명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선인들이 새겨놓은 지명을 복원하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풍수적 물형에 관련된 지명들의 예

· 땅이름에 관하여 한국의 풍토산하 어디를 막론하고 풍수지리설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 지형 자체가 어느 동물이나 물체와 비슷하여 그러한 땅이름이 저절로 생긴 곳도 많지만, 어느 곳 이름은 풍수사상과 연결 지어 짓기도 하고, 어떤 땅이름은 그와 관련하여 고치기도 했다.

예로부터 제주인들에 의해 불려 오던 오름의 이름이 제각기 있다. 그 후 한자표기에 따라 원래의 의미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있고, 일제 강점기에 일제 행정부에 의해 한자로 표기된 것이 있다. 일본에 의해 표기된 한자는 풍수의 의미가 내포된 선대의 지명을 살렸다기보다는 대개 소리나는 음을 따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한자표기를 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 그러나 선대의 지관들이나 마을마다 상지술(相地術)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풍수적 형국을 살펴 유래된 지명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다. 다음은 풍수에 관련된 오름의 대략적인 지명들이다.

사라봉(沙羅峰), 개월오름(犬月岳), 개오름(戌岳峰), 國馬御天地形(국마어천지형)인 어승생악(御乘生岳), 구분동산(狗分童山), 도두봉(道頭峰), 성널오름(城板岳), 물오름, 구두산(狗頭山), 거문악(巨文岳), 서우봉(犀牛峰), 바늘오름(針岳), 피꼬리오름(鶯岳), 식은이오름(死地), 서거문악(西巨文岳), 북악(鼓岳), 體岳(체악), 입산봉(立傘峰), 묘산악(猫山岳), 돌오름(猪岳), 높은오름(高岳), 아부오름(亞父

岳), 큰돌임이(大石額岳), 비치미(飛雉岳), 민오름(民岳), 성불오름(成佛岳), 가문
 이오름(加文岳), 샘이오름(泉岳), 거친오름(巨體岳), 밧돌오름(外石岳), 안돌오름
 (內石岳), 뒤꾸부니(後曲岳), 아진오름(座置岳), 동거문오름(東巨文岳), 쇠머리오름
 (牛頭岳), 말미오름(斗山峰), 은들오름(隱月峰), 용눈이오름(龍臥峰), 손지오름(孫
 子峰), 둔지오름(屯地峰), 나실이오름(螺施岳), 모구리오름(母狗岳), 유견애오름(儒
 巾岳), 통오름(桶岳), 궁대악(弓帶岳), 뒤고부니(後帶峰), 전이미(帝臨岳), 갑선이
 오름(甲蟬岳), 설오름(鋤乙岳), 따라비(地祖岳), 병곳오름(鳳歸岳), 큰사스미(大鹿
 山), 작은사스미(小鹿山), 영아리(靈峨岳), 쳇망오름(川望岳), 구두리오름(狗頭岳),
 못지오름(母地岳), 개오름(蓋岳), 가새오름(加勢峰), 매오름(鷹峰), 달산봉(達山
 峰), 알오름(卵岳), 이승이오름(狸升岳), 검은오름(黑岳), 물영아리(水靈岳), 웅악
 (雄岳), 마체악(馬體岳), 거인악(巨人岳), 영천오름(靈川岳), 삼매봉(三梅峰), 시오
 름(雄岳), 인정오름(伊信岳), 우보름(牛步岳), 모라이악(帽羅伊岳), 돌오름(石岳),
 弓山(궁산), 성천봉(星川峰), 영실(靈宮), 월라봉(月羅峰), 굴매오름(軍山·瑞山),
 개오름(戊岳), 거린오름, 병악오름(並岳), 용아리오름(龍臥伊岳), 돌오름(石岳), 광
 창이오름(廣蟹岳), 신산오름·감산(神山峰·柑山), 도레물(擧水井), 녹고물오름(水
 月峰), 새신오름(鳥巢岳), 새오름(楮旨岳), 이계오름(二鷄岳), 구분오름(狗奔岳),
 정월이오름(正月岳), 거문오름(今岳), 개꼬리오름(狗尾岳), 누오름(臥岳), 천아악
 (天娥岳), 와오름(臥牛峰·郭岳), 바꿈지오름(破軍峰), 도노미오름·어도오름(於道
 峰), 이달봉(猊蹄峰), 셋별오름(晨星岳), 괴오름(猫岳), 다래오름(多栗岳), 발이오
 름·바래오름(發伊岳) 등.

3) 오름 속에 내재하는 제주인들의 풍수관

i) 오름과 제주인의 지모관

종종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한다. '땅은 만물의 어
 머니와 같은 존재로 인간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토속 신앙적 사상이
 근간이 된 풍수지리는 토속 신앙인 대지모(大地母)사상과, 역(易) 이론인 중국의
 음양오행설이 결합하여 입지에 관한 체계적인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제주인의 '오름에 나서 오름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은 생장 소멸하는 삶의 이치에
 따라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범위 속에서 결국 영원한 쉼자리를 찾아 오름에 귀의
 하려는 귀소본능이라 할 수 있다.

ii) 지모관에서 발전한 풍수의 개념

풍수(風水)란 글자 그대로 바람과 물이며, '장풍득수(藏風得水)' 즉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라는 말의 바람(風)과 물(水)을 따서 붙인 말이다. 바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유행하는 기운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지형에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므로 가장 낮은 공간을 형성하는 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액체를 말한다. 낮은 곳은 횡으로 바람이 유통하는 길이므로 기운을 경계짓는 곳이 된다. 하늘과 땅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하늘은 양(陽), 땅은 음(陰)인데 하늘이란 지표면 바로 위에서부터 천체의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음이라고 한다면 공간의 천성(天星)인 태양은 곧 양인 셈이다. 양인 태양과 음인 지구의 중간 공간을 연결하여 주는 흐름이 천기(天氣)이며 이 기운은 음양이 상호 교감되는 기운이며 동시에 바람의 현상을 발생시킨다. 옛 사람들이 '물은 기의 모체'라 했고, '물은 기의 경계'라 하였다. '한 치라도 높으면 산이요, 한 치라도 낮으면 물'이라고 하여 풍수학에서 말하는 水의 개념은 낮은 곳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높고 낮음이라 함은 땅을 지칭하는 말이니 땅은 산봉(山峰)과 하천이 되는 것이다. 산은 높은 곳이 되고 천(川)은 낮은 곳이 되니 풍수학에서 산은 용(龍)이 되고 川은 水라 하며 龍은 정(靜)하여 음이 되고 水는 동(動)하여 양이 된다. 음양의 균등한 형세로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명혈(明穴)이 훌륭한 국세(局勢)를 만난 곳이 우리가 말하는 명당인 곳이다. 즉 산맥인 음의 용이 흘러가다가 양인 물을 만나는 지점이 되면 멈추어 서게 되니 이곳이 지기(地氣)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풍수란 산천의 정기가 땅의 지세를 따라 형성되고 변화되어 움직이는 일체의 기운을 말하며 풍수의 취기응결(聚氣凝結)하는 기운을 연구하여 적용된 학문이 풍수학이다. 또한 풍수학은 음양의 기운을 형세를 따라 살피고 논하는 형기학(形氣學)과 모양의 형태를 음양으로 수치화하여 추리하는 이기학(理氣學)을 말한다.

풍수지리학은 삶의 공간인 땅의 지세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삼라만상이 발산하는 물체의 기와 자연환경인 산천의 기운을 살아 움직이는 인간의 몸과 동일시하여 운용하는 생명력 있는 학문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천지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순행의 원리와 법칙을 일깨워 주는 심오한 학문이다. 따라서 풍수지리의 그 이치는 엄연한 것으로서 물, 바람, 땅 등 자연환경을 중시하고 대자연의 순환하는 법칙과 이치를 공부하고 적용하는 시간과 공간의 환경학문으로서 오늘날 현대 건축(주택)공학의 뿌리이며 생명의 모체인 자연과학의 시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풍수는 공간의 조화로운 이법에 맞추어 순응하고 동화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그 원리는 크게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음택과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풍수의 이법에 맞추어 응용하는 양택으로 크게 나누어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양택은 건축분야는 물론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이루게 하는 주요 생활공간으로서 주택공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근간이 되고 있다.

음택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양의 孝(효)의 사상에 근본을 두고 동기감응(同氣感應)의 원리로 돌아가신 조상을 산천정기가 취합응기(聚合凝氣)되는 길지에 편안히 모심으로서 돌아가신 부모 또는 조상의 기가 후손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미치는 영향을 자연과학의 이법에 맞추어 길흉을 살피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조상과 자손간의 상호 좋은 기가 교감된다면 그 작용력은 응당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자손의 번영과 행복은 물론 건강을 추구하고 향수하는데 있는 것이다. 풍수지리학은 대자연의 순환원리를 이용하는 자연합일의 심오한 자연과학이며 인간으로서 자연의 합당한 순리에 역행하지 않는 지극히 자연사랑의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제주오름과 지모관

1) 설문대할망과 오름에 얽힌 설화

설화적으로 한라산을 창조했다는 전설의 여신인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만들기 위해 소가 누워 머리를 든 형국인 와우형(臥牛形)인 우도에서 치마폭에 흙을 싸고 가다가 떨어뜨린 흙이 오름이 되었다고 한다. 설화 속에 설문대할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큰 거녀(巨女)였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갈래로 전승된다. '한라산을 배개삼고 누우면 다리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한라산을 엉덩이로 깔고 앉으면 한쪽 다리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한라산 엉덩이로 깔고 앉아 한쪽 다리는 관탈섬에 디디고, 한쪽 다리는 서귀포 앞 바다의 지귀도에 디더서 우도를 빨래돌로 삼아 빨래를 했다는 등의 설화가 있는데, 예로부터 제주인들은 옥황상제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었으며, 모진 시련과 혹독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절해고도인 섬의 숙명을 상상의 '설문대할망'이라는 신의 힘에 의지해 꿈을 이루려고 했던 소망이 마음 밖으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은 그들이 일생동안 살

아가고 오름의 자락에 영원히 뼈를 묻을 소중한 땅을 인격동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뿌리로 생각한 것이라 본다. 그것은 바로 제주인들의 마음속에 땅과 인간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보는 일체관과 땅은 영원한 어머니의 품이라는 지모관이 자리했기 때문이라 본다.

2) 호종단의 지압설

호종단(胡宗旦)의 전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고려 제 16대 예종때 중국 복주(福州)사람인 호종단은 압승지술(壓勝之術)을 지니고 고려 왕경에 들어와서 각 지방을 순회 답사하다가 본 제주도에 들어와서 지맥을 탐사하고는 무슨 심술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술책으로 산수의 기운을 제압하려 하였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지니고 있던 술서(術書)를 태워 버렸다는 전설이 있다. 그가 여행을 끝내고 귀도(歸途)에 올랐을 때 때마침 폭풍우로 인하여 차귀도 부근에서 침몰하니 세상에 전하길 탐라의 수호신이 독수리로 화하여 호종단의 횡폭함을 보복한 것이라고 전한다. 그래서 후세 사람이 영렬(英烈)함을 숭경하여 차귀당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내고 호종단이 돌아감을 막다라는 한자어인 '차귀(遮歸:돌아감을 막다의 의미)'를 붙여 차귀도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상의 전설에서 의미하듯 풍수학적으로 지맥을 끊으려 한 호종단의 이야기가 그 당시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 기혈이 순환하는 이치를 중시한 선조들의 자연관을 엿볼 수 있으며, 사람이 사는 고장에 물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생기가 맺히지 못하는 땅의 조건을 암시하는 중요한 전설이다.

3) 제주의 12대 명혈(6대 음택지와 6대 양택지)

제주 선인들은 음택지로서의 육대 명혈지(名穴地)와 양택지로서의 육대 명혈지를 후인들에게 전했다. 제주도의 음택 명혈지 가운데 4대명당은 해발 1200m 이상의 높은 지대에 자리하나 수많은 풍수가들이 이곳을 찾으려고 술하게 다녀갔어도 아직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으니 우리대에 아니면 후대에 덕있는 이가 찾을 수 있을까? 또한 이밖에도 제주도는 곳곳에 동서남북으로 명혈을 지니고 있는 기(기)가 생동하는 곳으로써, 오름의 수가 무려 368개 정도이며, 영험한 땅의 기운이 서려 있는 명혈도 약 360여 개가 된다. 어찌 6대명혈과 360여 개의 명혈뿐이라? 본인이 보기에는 하나의 오름에 2~3개의 명혈이 있다고 볼 때 약 700여 개의 혈이

대소의 차별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아니 땅의 성정을 따라 삶의 터를 정한다면 어느 땅이든 막론하고 사용하는 자의 지체에 따라 무한대의 지기(地氣)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 하늘이 숨기고 땅이 숨긴 명혈중의 명혈도 그 지리를 쓰는 사람의 성정과 덕성에 맞아야 생기발현하는 것이며, 명혈은 시간이 추이(推移)함에 따라 변해 간다. 다시 말하여, 세월이 가면 인심도 변하고, 땅의 성정도 변한다. 길이 뚫리고 건물이 들어서며 물길을 돌려 하천의 지류가 변하면 그에 따라 지기의 흐름도 변한다. 또한 땅은 그대로 있으나 땅속은 계속 요동하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사상도 그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기운이 변화하는 성정을 파악하면 그에 합당한 자리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천지의 공덕이 공평하기 때문에 예전엔, 외지고 척박한 땅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발복의 땅으로 다가오고, 예전엔 사람들이 모이는 발복의 땅이었으나 세월이 흘러감에 척박한 곳으로도 변화한다. 그 변화한다는 이치는 천지대자연의 법칙과 순환의 진리이다. 그 변화에 따라 생장소멸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삼라만상의 실체이다. 제주의 오름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개성과 생기를 저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리의 성정에 맞는 오름의 성정에 맞는 지리의 법을 이용하여 생활의 지체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길지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참고로 예로부터 지관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제주도의 6대 음택혈과 6대 양택혈은 아래와 같다

〈음택지 6대 명혈〉

- (1) 紗羅在漢拏山東北中腰將相地(百代富貴榮華將相處)
 ‘사라악’으로써 한라산의 북동쪽 중간 허리부분으로 장상(將相)의 땅이다.
- (2) 蟻項在漢拏山北中腰將相地(死雉掛壁形·紗帽嶺案)
 의항(개미목=개여못)은 한라산의 북쪽 중간 허리부분에 있으며, 將相의 땅이다(사치괘벽형: 죽은 꿩을 벽에 걸어 놓은 형).
- (3) 靈室在漢拏山西腰將軍大坐 御營大將九千命令地.
 ‘영실’로써 한라산 서쪽 허리부분으로 장군이 위용있는 모습으로 앉아서 9천의 어영장군(御營將軍)들을 거느리고 호령하는 땅이다(寅坐申向).
- (4) 豬頭在漢拏山西北腰上東向西坐下西向卯坐東萬乘西百乘.
 ‘저두(돼지머리=둘두명)’로써 한라산의 서북쪽 허리부분으로 윗 부분은 향이 동쪽으로 유좌(酉坐: 서쪽에 머리를 둠)이고, 그 아래는 서쪽으로 향을 하고 묘좌(卯坐: 동쪽에 머리를 둠)를 하면 동으로 만승(天子的 자리)이요 서쪽으로

백승(군왕의 자리)이라.

- (5) 반득전(幣得田=반디기왓) : 남원읍 의귀리 지역(수망리쪽에서 물오름으로 이어지는 평평한 밭으로 황사출림형(黃蛇出林形)이다.
- (6) 반화전(蟠花田=별진왓) : 한림읍 누운오름 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옥녀단좌형(玉女端坐形)·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이다.

<양택지 6대 명혈>

- (1) 구아낭(狗兒囊귀아낭=귀낭동=귀여낭) :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남쪽 일대로 개의 젖주머니와 비슷한 형국.
- (2) 호천(狐川=여호내=예온촌) : 남군 남원읍 신흥2리 일대로 지형이 고저가 없는 평평한 곳.
- (3) 사반(蛇盤=배염바리) : 남군 안덕면 창천리 「배염바리(蛇盤)」 집터.
- (4) 한교(漢橋=한다니) : 북군 한림읍에 위치하며 중천대교형(中天大橋形).
- (5) 의귀(衣貴=옷귀) : 남군 남원읍 의귀리 일대.
- (6) 어도(於道=도노악=도내악=봉성) : 북군 애월읍 봉성리 어도오름 일대로 옥봉귀소형(玉鳳歸巢形)이다.

5. 제주문화 속의 풍수관

1) 비보·압승의 풍수관

한 고을이나 부락의 지형·지세가 불길하여 기의 응집(凝集)이 부족하거나 허(虛)한 상태라 해도 이미 주거집단의 생활터전이 형성된 곳은 쉽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 그러므로 풍수설은 길지를 다른 곳에 구해서 옮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지형의 부족한 요인을 보충하기 위하여 땅힘(地力)을 보충하는 등의 비보(裨補)나 불길한 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풍수상의 흉한 기운을 인위적인 조작으로 눌러 이기는 압승(壓勝)의 방법을 발전시켰다. 압승은 너무 강한 땅의 기를 이완시켜 주는 것이며, 비보의 관념은 풍수학뿐만 아니라 고대 원시인들이 어떤 영력을 지님으로써, 약한 힘을 강하게 하고자 한 차력신앙(借力信仰)이나 주부(呪符)신앙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비보의 방법으로 탑을 세운다든가 절을

짓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신라 황룡사 9층목탑은 국가의 안전과 삼국통일을 위하여 세웠고, 충주의 중앙탑은 중앙의 땅을 진호하기 위하여, 또는 국토의 중앙인 그곳에 왕기가 충천한다고 여겨 이를 억압하려고 세웠다 한다. 특히 제주도의 비보 풍수관은 방사탑과 돌담 등의 생활문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 방사탑과 돌담

마을에서 보아 그 허(虛)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마치 용의 형태로 높고 낮게 쌓은 돌담이 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으며, 동시에 방사탑(防邪塔)을 2~3미터의 높이로 허한 곳으로 침입하는 살풍(殺風)을 막아 주고 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외부에 다른 섬이나 가까이 조산과 안산이 없는 곳이면 대체로 방사탑을 위시하여 돌담을 겹겹으로 쌓아 둔 곳이 많다. 돌담을 이중삼중으로 겹겹이 친 것은 바람막이가 없는 허한 해안으로부터 불어닥치는 강한 해풍으로부터 살풍을 걸러주는 역할로써 풍수의 지체를 선인들이 발휘한 것으로 본다.

3) 으뜸은 마을의 진산¹⁴⁾

이중환의 『택리지』에 “무릇 살 곳을 정하는데는 첫째 지리를 으뜸으로 삼고, 그 다음 생리(生利: 땅에서 생산되는 이익)가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 인심이요, 다음으로 수려한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좋은 땅이 아니다. 지리가 비록 좋아도 생리(생리)가 결핍되면 오래 살 수 없고, 생리가 비록 좋으나 지리가 나쁘면 역시 오래 살 수 없으며, 지리와 생리가 모두 좋아도 인심이 나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게 되고, 가까운 곳에 즐길 만한 산수가 없으면 성정을 화창하게 흐르게 하지 못한다”¹⁵⁾ 라고 되어 있다.

예로부터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리는 마음에서 풍수적으로 허한 부분을 막아 주는 역할로서의 기능도 함께 했다고 본다. 풍수의 고전으로 꼽는 『장경(葬經)』에

14) 풍수에서 말하는 내용(來龍)의 맥절(脈節) 속에 묘지 뒤에 높게 솟은 산을 말하며, 주산(主山) 또는 후산(後山)으로 말하며, 보통 부락이나 묘지에는 이러한 산이 있다. 마을의 경우는 이 주산이 마을을 수호하여 준다고 하여 진산(鎭山)이라 한다.

15)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大抵, 卜居之地, 地理爲上, 生利次之, 次則人心, 次則山水, 四者缺一, 非樂土也, 地理雖佳, 生利乏則, 不能久居, 生利雖好, 地理惡, 則亦不能久居, 地理及生利俱好, 而人心不淑, 則必有悔吝, 近處無山水可賞處, 則無以陶瀉性情

'기가 바람을 타면 흩어진다'¹⁶⁾고 되어 있다. 마을을 휘감고 있는生氣(생기)가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마을이 쇠퇴한다고 보는 선인들의 지혜이기도 하다.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뛰어난 인물은 하늘의 정기를 품은 신령한 땅의 기운을 타고난다'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리의 조건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중환의『택리지』에 "먼저 수구를 보고, 그 다음에 들(野)의 형세를 보고, 다음으로 산의 형세를 살피고, 다음으로 흙의 빛깔을 보고, 다음은 조산(앞의 안산 뒤에 멀리 있는 높은 산)과 조수를 본다. 무릇 수구가 영성하고 넓기만 한 곳은 비록 좋은 밭 일만 이랑과 넓고 큰 집이 천 칸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자연히 흩어져 사라진다. 그러므로 집터를 찾으려면 반드시 수구가 꼭 잠긴 듯하고 그 안에 들이 펼쳐진 곳을 착안한 후 구해야 한다"¹⁷⁾고 되어 있다.

제주도는 장축이 북쪽을 기준 하여 동쪽으로 약 70° 정도 기울어진(N70E) 달걀 모양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제주도는 부속도서로 유인도 8개, 무인도 54개로 모두 62개 섬을 거느리고 있는 섬이다. 1950m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심원의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거대한 산을 연상케 한다. 또한 제주도는 예로부터 바람이 많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주저지가 해안선을 따라 바다에 가까이 인접해 있으므로 바람에 노출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남쪽 모슬포 지역이 바람이 가장 강하다. 바람은 혹독하나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며 지리적으로 태풍의 진로선상에 있기 때문에 잦은 태풍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기후조건 때문에 제주인들은 허한 곳은 바람의 침입이 용이한 허한 곳을 풍수적으로 보완하는 장풍(藏風)의 생활문화가 싹텄다. 그러한 영향은 생활의 주거지인 양택, 돌담, 묘지 등에 적용되어 나타난다. 김정희의 《제주풍토록》에 "기후는 겨울이 혹 따뜻하고, 여름이 혹 서늘하나 일기 변화가 많아 바람과 공기는 따듯한 것 같으나, 사람에게는 매우 몸서리날 만큼 날카롭고 사람의 의식(衣食)에 알맞게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이 나기 쉽고, 더욱이 운무(雲霧)가 항상 음침하게 가리우고, 하늘이 맑게 개인 날이 적으므로 거기에 대하여 질풍과 괴이한 비가 솟구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없어서 찌는 듯이 덥고 축축

16)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氣乘風則散

17)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先看水口次看野勢次看山形次看土色次看水理次看朝山朝水凡水口虧缺空闊處雖有良田萬頃廣廈千間不能傳世自然消耗耗敗故尋相陽基必求水口關鎖內開野處着眼

함으로 숨이 막힐 듯이 답답하다. 또 땅에는 벌레들이 많음에 더욱이 파리와 모기가 심하고, 무릇 지내와 개미와 지렁이 따위의 여러 가지 우글거리는 벌레들이 겨울이 모두 지남에도 죽지 아니하여 매우 견디기 어렵다.”¹⁸⁾ 고 했다. 이처럼 척박했던 땅에 사계절의 기후마저 불규칙하였고 잦은 태풍과 더불어 겨울의 서북풍과 매서운 바람은 건축의 양식과 주거의 문화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으며, 오름은 기의 흠어짐과 바람을 막는 장풍(藏風)의 역할과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갖다 주고 지켜 주는 진산(鎭山)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4) 오름의 설화에 나타나는 인격화

제주의 오름은 풍수와 관련된 설촌의 유래를 시작으로 대체로 지명을 위주로 설화와 전설을 담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특히 제주 오름의 생성에 관한 설문대할망의 설화, 호종단의 전설, 서산(瑞山 : 지금의 단산)의 폭발전설, 등대봉의 전설, 물영아리 오름(남원읍 소재), 물장오리 오름(제주시 소재), 웅당(원당)오름(제주시 소재), 붉은오름(애월읍 소재), 고산 수월봉의 '녹고남매'의 슬픈전설, 산방산과 백록담, 영실 오백장군 이야기, 바우오름(식산봉)의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전설', 본지오름(본지방·노박덩굴)의 유래에 관한 전설, 나시리 오름의 명지관 이야기, 죽은대비오름의 선녀이야기 등 대부분의 오름들이 설촌과 연계하여 지명 유래에 관한 전설을 안고 있다. 이처럼 오름을 인격화한 이면에는 오름이 갖는 중요성을 제주선민들은 이미 간파하였던 것으로 본다. 오름에서 나와 오름으로 돌아가는 제주인들의 삶은 오름이 의미하는 소중함만큼이나 오름의 자락을 일구며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오름에 방목한 牛馬(우마)를 식용으로도 이용하며, 그들이 배설한 분비물은 거름이 되어 제주인들의 생활의 젖줄이 되었고, 하늘에서 내린 비는 오름이 받아 저장하고 마을마다 생명수를 제공하였으며, 나무와 풀과 약초들을 생산하여 제주인들의 삶을 이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제주인들은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오름을 신성시하였으며, 오름에 대한 생명관이 특이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자연환경에 대한 선견과 소중함을 알았던 지혜의 발단이기도 하며, 오름을 동일한 인격체로 보는 자연관이 앞섰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날 그들의 후손인 우리는 오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18)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氣候 多或溫 夏或涼 變錯無恒 風氣似暄 而着人甚尖利 人依食難節故 易於生疾 加以雲霧恒陰 翳少開霽 盲風怪雨 發作無時 蒸濕沸鬱 又地多蟲類...

지 생각해 볼 일이다.

5) 제주의 산담에 드러나는 생사일여관

육지의 묘와 달리 제주도는 묘 주위에 담을 친다. 산담(墓牆)의 형태는 사각형과 원형이 있는데 대부분 사다리꼴로 된 사각형의 산담이다. 산담은 제주 상례절차의 하나이며, 장례 당일날 행하기도 하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다른 날 길일을 택일하여 행하기도 한다. 산담의 목적은 묘지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묘역의 넓이와 산담의 크기로 집안의 세(勢)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별초시에는 산담 안과 산담 밖의 1미터 정도의 외곽도 함께 별초한다. 산담의 한 모퉁이에 절개된 곳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신문(神門)'이라 하여, 망자(亡者)가 산담 밖으로 외출을 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테면, 묘는 망자의 집이요, 신문은 망자가 출입하는 문이요, 산담은 망자가 머무는 집의 울타리에 비교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제주인들이 조상에 대한 孝(孝)의 사상에서 기인했다고 보며, 산자(生者)와 죽은 자(亡者)를 동일한 인격체로 생각한 것으로 본다. 결국 이것은 산 것과 죽은 것을 분리하지 않는 개념일 수 있다. 살고 죽는 일은 우주순환의 일정한 반복이며 순리이다. 살아 땅 위에서 생활하는 것과 죽어 땅 아래서 휴식하는 일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하나의 통일된 과정으로 생각한 '생사일여관'을 제주인들의 의식 속에 뿌리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 오름의 품에 돌아가려는 귀소관

풍수는 인간과 대자연과의 조화를 꾀하는 학문이다. 자연의 이법에 맞추어 삶을 지향하는 음양의 순리론이다. 인간을 비롯하여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천지대자연의 품속에서 생장 소멸한다. 죽은 땅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땅은 순환하는 인체의 기혈(氣血)처럼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큰 생명체이다. 그 생명체 속에는 수만 수천의 혈(穴)이 간직되어 있으며, 수많은 땀구멍과 천갈래 만갈래 싹뿔줄이 엉겨 있으며 엄연한 질서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잉태해 낸다. 태고로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대자연이며 지모인 품안에서 역사를 거듭하며 현재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땅과 바람과 물의 순환 속에서 만상이 살아 숨쉬고 꿈틀거린다. 기후는 인간의 체온과의 관계이며, 산천은 몸과 기혈의 관계이다. 산하의 순환이 제 자리를 찾아 돌아 흐를 때 땅에 사는 사람들도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

이다. 순환하며 흘러가야 할 산천강하가 어디에선가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 끊기거나 차단되거나 역류되거나 잘라지거나 하면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부작용은 엄청난 재해로 인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자연의 질서와 생태적 균형이 깨어지면 화(禍)는 결국 인간에게 미치게 된다. 오늘날 천재지변이나 엄청난 자연의 재해는 따지고 보면 원인은 인간의 무지와 욕심에서 근간이 된 것이다. 해마다 수재, 풍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볼 때 거의가 개발이란 명분아래 무분별한 난 개발의 파괴로 인하여 치산치수(治山治水)를 무시한 순환과 배설을 원리를 무시하여 홍수가 범람하여 삶의 터를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결과도 우리는 보았을 것이다.

제주인들의 풍수관은 결코 부귀발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사상이다. 물론 개인의 허욕을 위해 혈(穴)을 찾으려면 찾기도 힘든 것이다. 고서에 말하길 '대개 참된 혈은 하늘에서 감추고, 땅이 비밀히 하여 덕이 있는 사람을 기다린다'¹⁹⁾ 라고 했다. 오름이 몸살을 앓으면 제주인도 더불어 몸살이 나는 것이다. 제주인은 오름을 동일한 인격체로 보았으며 대지도 사상을 위주로 하여 한라산은 우리를 낳아 준 어머니로 보며 그 품안인 오름의 사이에 살고 있는 인간을 자식으로 간주하여 애지중지 한 것이다. 제주인은 오름에서 태어나 결국 오름으로 돌아간다. 오름의 따스한 어머니의 품을 잃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곧 오름이 파괴될 때 우리도 함께 절멸한다는 이치와 통하는 것이다.

7) 체(體)의 개념으로 본 오름의 생명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의 자연생명체이다. 자연을 생명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풍수이다. 죽어 있는 산하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땅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죽은 땅에 초목이 살 수 없듯이 황폐한 자연환경에서 생명체의 활동력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풍수의 목적은 천지 대자연의 시간과 공간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자연법칙인 생태계의 산천지력에 의해 인생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는데, 삶의 공간인 주택을 생기가 취기(聚氣)되고 잘 흐르는 길지에 정해 건강과 행운의 복력을 구하고 효 사상에 근본한 조상숭배, 보본반시(報本反始)에 입각하여 조상의 선영을 길지에 모셔 자손의 번영과 창달을 도모하는데 있다. 특히 풍

19)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蓋眞穴則天藏地秘, 以待有德之人.

수설은 모든 우주 만물을 받아들이고 자양(滋養)해내는 역할로서의 땅을 만물을 양육하는 인간의 생모로 간주한 지모의 관념에서 태동된 사상이라 볼 수 있으며 주거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미치게 되는 기의 영향을 말하고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은 한 순간도 자연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산천의 수려한 기상과 산천의 둔탁한 기상에 의해 잘나고 못한 사람이 나온다는 말이다. 인간에게 백해구공(百骸九空)이 있듯이 땅에도 천갈래 만갈래 각기 수많은 형태를 지닌 만수천산(萬水千山)이 있다. 이는 서로 얽히고설켜어 상호 대립과 통일을 이루면서 연관작용을 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히 산과 물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른다.

하늘에는 365일이 있고 사람 또한 365개의 골절이 있으며, 365여 개의 경혈이 있다. 하늘에 12시가 있으니 사람에게도 12경락이 있다. 하늘에 5운6기의 변화가 있으니 사람에게도 5장6부가 있으며, 하늘에 해와 달이 있으니 사람에게엔 눈과 귀가 있다. 하늘에 24절후가 있으니 사람에게도 24초(焦)가 있고, 사시(四時)의 계절이 있으니 사람에게엔 사지(四肢)가 있다. 땅에 초목과 흙과 돌이 있으니 사람에게엔 털과 힘줄과 뼈마디가 있다. 사람의 상반신을 천기라 하고 사람의 하반신을 지기라 하고 사람은 천지간의 정기를 지니고 있으므로 소천지(小天地)라 한다.

이렇듯 인간은 천지자연의 일부로서 한 순간도 분리될 수 없으며 온갖 천지대 자연의 이치를 모두 품수하고 있는 것이다. 태어남도 자연으로부터 왔고 생명이 다 함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고 죽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순환과정으로서 영원한 우주의 대진리 속에 기가 흩어졌다 모여졌다 하는 원리라 하겠다. 모든 사물에 영성이 들어 있는 이치이다. 돌 하나 풀하나 그 어디에도 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신체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모든 뼈에 뼈마디가 있고 구멍이 있는데 어떤 것은 보이고 어떤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땅에도 만갈래 천갈래의 물과 산이 있는데 어떤 것은 서로 얽히고 어떤 것은 안으로 뭉쳐 있으며 또 어떤 것은 나타나 있는 형상이다.

오름은 제주다운 최후의 모습이며, 제주를 지켜 주는 최후의 생명체이다. 다시 말해 한라산은 체(體)요, 오름은 용(用)이다. 사람의 몸에 365혈(穴)이 있고 제주도의 오름도 368개다. 한라산은 몸체요, 오름은 인체의 혈(穴)이다. 산줄기는 뼈대요, 사방으로 뻗어 내려간 하천은 핏줄이다. 백록담은 두뇌요, 산록은 허리부분이요, 성관악은 심장이며, 어승생은 위장이요 영실은 기운을 다스리는 폐장이다. 아흔아홉골은 척추이고 윗세오름은 어깨이며, 중산간은 복부와 허벅지이고, 해안선

은 손과 발이다. 지금 이 순간 손과 발인 해안 구조선이 본형을 잃어 가고 있으며, 허리가 사방으로 잘려나가고 있으며, 복부와 허벅지가 파헤쳐지고 있다. 잘리고 망가진 몸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전의 기능만큼 돌아오진 않는다. 제주의 선민들은 오름을 제주의 생명체로 여겼다. 이제 오름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존재하는 공동의 생명활동과 연관하여 그 가치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6. 오름과 목축

제주는 한라산 등성이에 넓게 펼쳐진 초지에 온갖 풀들이 풍부하고 또한 사나운 짐승이 없어서 소와 말을 방목하기에 알맞은 곳이다. 삼성 신화에 망아지와 송아지 등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에서 목축의 시작은 아주 오래 전의 일로써, 특히 고려 문종 때 좋은 말을 바친 기록이 보이며, 원나라에서 제주를 지배하면서부터 말의 양육이 본격화 되었다. 그후 고려가 멸망하면서 조선에 인계되었고, 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비로소 마정(馬政)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원나라 지배시 처음 목장지대는 해안의 평야 지였으므로 크고 작은 농작물의 피해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자 1429년(세종 11년)에 고득종이 해안지대에 산포한 목장들을 한라산 등성이로 옮겨서 담장을 쌓도록 건의하자 받아들여져서 말들을 20소(所) 60둔(屯)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그 후 1702년(숙종 28년) 이형상의 『남환박물』에 의하면, 당시 목장이 63개소가 있었는데 관리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자, 1704년(숙종 30년) 송정규 목사가 상태가 좋지않은 목장은 버리고 작은 목장들은 큰 목장으로 합쳐서 모두 10소장으로 나누었다. 제주 목사는 목장관리의 총책임자가 되고, 제주 판관, 정의 현감, 대정 현감은 감독관의 직책을 겸임하였으며, 그 밑에 목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마감(馬監)과 우감(牛監)이 있으며, 다시 그 밑에 군두(群頭)와 군부(群副)가 있었으며, 맨 마지막에 소와 말을 사육을 담당하는 목자(牧子)들이 있었다. 특히 목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군두로 임명했는데, 50필을 둔마(屯馬) 단위로 하여 2명의 목자가 사육을 책임졌으며, 둔마의 구별은 천자문(千字文)의 글자를 낙인(烙印)으로 하여 사용하였다.²⁰⁾

이러한 소장(所長)에 제주인들의 자연풍수관을 이용한 묘들이 준비하게 들어서

20) 金奉玉 『增補 濟州通史』

있다. 각 소장별로 명혈지를 대략적으로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一소장이 3~4곳이요, 二소장이 2~3곳이요, 三소장이 2~3곳이요, 四소장이 37~38곳이요, 五소장이 27~28곳이요, 六소장이 23~24곳이요, 七소장이 4~5곳이요, 八소장이 3~4곳이다. 소장별로 볼 때 제주목에 속한 四소장이 가장 많이 명혈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五소장, 다음으로 六소장 등으로 명혈지가 많다. 목장구역 내에 명혈이 많은 것은 한라산을 정점으로 했을 때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한라산 자락이 이어진 등성이와 주변 오름들의 지맥을 받아 기운이 응집되어 이루어진 대부분의 혈처들이며, 그 사이로 주변 하천들이 돌고 휘감으며 지기(地氣)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이다.

7. 오름과 문학

제주도는 한라산 그 자체이고 한라산은 제주도 그 자체다. 오름과 한라산은 하나의 체(體)이기 때문에 오름을 이야기할 때 한라산을 빼어놓을 수 없고, 한라산을 이야기할 때 오름을 빼어 놓을 수 없다. 다만 이용의 선택 면에서 체용(體用)의 관계라고 본다. 오름은 곧 한라산이고 한라산은 곧 오름이다. 제주만의 고유한 향기를 품은 전통문화 속에는 아름다운 한라산을 위시한 시와 산문, 노래는 수없이 많다. 그 속에는 한라산을 예찬한 다양한 詩(시) 문학이 숨쉬고 있으며, 제주만의 형승과 산천, 민속, 마을의 전통, 민요, 풍습 등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으며, 특히 오름에 관련된 설화문학이 잔잔히 배어 있다.

8. 오름의 형상화 - 제주의 초가와 돌 문화

제주특유의 돌담으로 울타리를 두르고 지붕은 띠풀(제주에서는 '새' 라고 함)로 덮은 다음 띠풀을 꼬아서 만든 밧줄로 바둑판처럼 단단히 동여매면 제주의 전형적인 초가집이 된다. 특히 바람 많은 제주 섬에서 바람과 싸워 온 제주 조상들의 생활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제주 초가집은 오름을 기대고 살아온 제주인들의 삶이 잘 나타나 있다. 오행의 체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제주오름은 특히 둥그런 원형의 곡선미가 지배적이다. 또한 제주의 오름들은 포근하게 다가오는 半月形(반월형)의 오름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초가집의 원형은 오름의 형상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집의 울타리는 물론 해안이나 밭 등에 높고 낮게 고저기복의 형상으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돌담은 풍수학적인 산의 능선, 즉 용세(龍勢)를 형상

화했거나 오름의 등성이가 고저를 이루며 출렁이는 듯한 형상의 곡선미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9. 맺는 말

오름은 제주문화 속에서 제주인들의 삶의 상징이었다. 생활의 근거지였고, 항쟁의 터전이었으며 얼룩졌던 역사의 질곡 속에서 아픔과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또한 돌아가 실 그들의 뼈를 묻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었으며, 마소를 풀어 방목했던 테우리들의 생활 근거지였다. 시간의 역사 속에서 오름은 그들의 젖줄이었으며, 희망을 담고 의지했던 정신적인 요람이었다. 제주문화 속에서 오름은 제주인들의 삶 그 자체이면서 문화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다.

오름의 형상에서 문화적 양식이 짝 트였고, 오름을 기대어 살아가는 그들은 오름을 중히 여기는 자연관이 깊게 배어 있었다. 오름과 관련한 지배적인 저류는 자연의 이치에 역류하지 않고 순응하는 「자연풍수관」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름에 나서 오름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땅을 모태로 삼는 지모관을 엿볼 수 있으며, 지명에는 풍수에 관한 설화나 전설이 배경이 되어 있다. 『제주도산록』에 나오는 풍수적 물형의 형국에서 볼 수 있듯이 오름을 배경으로 풍수지리의 이법에 따라 명철지를 찾아 선영의 묘를 쓰고자 했던 점을 들어 대개 마을의 공동묘역이 장풍득수지에 위치해 있다. 마을에 얽힌 설촌유래나 오름의 지명에서 자주 나타나듯 제주문화 속의 오름은 땅을 모체로 한 자연풍수관이 제주인들의 생활 속에 농축되어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 자연풍수관은 제주만의 독특한 기후·지형과 맞물려 생활문화 곳곳에 파고 들었으며, 특히 비보·압승의 풍수관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흔적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비근한 예로 방사탑과 돌담, 대개의 마을들이 오름을坐(좌)로 하여 설촌된 점이다. 오름의 문화에서 배태(胚胎)된 제주인들의 생활풍수관을 엿볼 수 있다.

설화에 나타나는 오름의 인격화, 산담(墓壇)에 나타나는 ‘생사일여관(生死一如觀)’, 오름의 품에 돌아가려는 ‘귀소관(歸巢觀)’, 오름을 사람의 인체로 생각한 ‘자연생명관’ 그 밖에 오름의 형상미의 영향과 관련한 제주의 초가집과 돌 문화에서 나타나는 생활건축 문화와 사고방식, 한라산과 오름을 모체로 하여 핀 문학관을 선대의 시가나 수필 등에서 엿볼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오름 속에서 피어낸 삶의 문화는 오름을 자연의 인격체로 중시했던 제주인들의 자연환경 의식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자연을 경외하고 중시하는 제주인들의 문화 속에는 무엇

보다도 오름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그들의 정신이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오름의 이면에는 제주인의 자연풍수관이 깊게 자리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제주도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교육자료 29호), 신일인쇄사, 1976.
- 作者未詳, 『瀛州誌』.
- 沖庵 金淨, 『濟州風土錄』.
- 淸陰 金尙憲, 『南槎錄』.
- 葵窓 李健, 『濟州風土記』.
- 太湖 李元鎮, 『耽羅志』.
- 心齋 金錫翼, 『耽羅紀年』.
- 李重煥, 『擇里志』.
- 秦聖麒, 『南國의 地名由來』, 濟州民俗研究所, 1975.
- 梁弘植·吳太用 共編 『濟州鄉土記』.
- 『濟州島實記』, 濟州實跡研究所發行.
- 作者未詳, 『濟州島山錄』.
- 作者未詳, 〈過瀛州山勢論〉.
- 作者未詳, 〈瀛州翫形詩〉.
- 胡舜申, 『地理新法』.
- 蔡成禹 編纂, 『明山論』.
- 青烏子, 『青烏經』.
- 郭璞(晉), 『錦囊經』.
- 徐善繼·徐善述 合著, 『地理人子須知』.
- 澄陽 趙九峰, 『地理五訣』.
- 李增 著, 金益洙 譯, 『南槎日錄』.
-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文化社, 1964.
- 『高麗史節要』, 東國文化社, 1964.
- 『제주의 오름』, 濟州道, 1997.
- 石宙明, 『제주도 수필』, 보진재, 1971.
- 金奉玉,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 秦聖麒, 『남국의 무속』, 형설출판사, 1987.
- 濟州道, 『제주도誌』, 상, 하, 1982.
- 西歸浦市 教育廳, 내고장의 이야기 『設村由來』, 대영인쇄, 1986.
- 金奉玉, 『增補濟州通史』.
- 전연술, 『제주도에 감수파?』, 신라출판사, 서울, 1993.
- 梁海明 譯註, 『老子』, 武漢出版社, 武漢.
- 魏伯陽(後漢·東漢), 『周易參同契』.
- 葛洪(晉) 顧久 譯註, 『抱朴子』, 貴州人民出版社.
- 劉大鈞, 『周易古經白話解』, 山東友誼出版, 山東省.
- 鄭萬耕, 『易學源流』, 沈陽出版, 沈陽.
- 高亨, 『周易大傳今注』, 齊魯書社, 山東省.
- 趙京生, 『三命通會』, 中州古籍.
- 徐大升(宋), 『淵海子平』.
- 張楠(明), 『命理正宗』.
- (宋), 『窮通寶鑑(欄江網)』.
- 任鐵樵(清), 『滴天髓闡微』.
- 劉伯溫(明), 『滴天髓』.